

C I Rレポート1月号（韓国）

「韓国の若者を中心に流行っている「YOLOライフ」^{ヨ-ロ-}」

国際交流員 ^{ペ ユンジュ} 裴 允珠（韓国）

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の交流員ペ・ユンジュです。

今回のC I Rレポートでは、今、韓国の若者を中心に流行っている「YOLO ライフ」について紹介します。

1. 「YOLO」とは？

皆さん、Y O L O（ヨ-ロ-）という言葉を知っていますか？

「YOLO」とは、「人生は一度きりだ」という意味である「You Only Live Once」という言葉の頭文字で作られた用語です。人生は一度きりなので、現在を愛し楽しもう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ます。

元々「YOLO」は、カナダのラッパー「ドレイク」の 2011 年に発売された歌「The Motto」の歌詞として使用され、若者の中で話題になったそうです。そして、2016 年、オバマ元アメリカの大統領が健康保険の改革案の PR 映像で「YOLO, man」と話しました。結局 2016 年、オックスフォード辞典にも新しい言葉として登録されました。この「YOLO」という言葉と行動が、今、韓国で流行っている理由は何でしょうか。



2. 韓国で「YOLO」が流行っている理由

「YOLO」という言葉は「花より青春－アフリカ編」という番組に出てきたことで、韓国で注目されました。アフリカで一人旅をしている女性に「格好いい！」と声をかけたら、その女性が「YOLO」と答えました。

実は、現在の韓国の若者は大変厳しい状況で生きています。終わらない競争、低成長期、日々高くなる青年失業率、不透明な未来の時代の中で韓国の若者は疲れています。

そこで、希望のない未来のため現在苦しんでいる韓国の若者たちに、「現在を愛し楽しもう」という意味である「YOLO」は一種の解放感を与えたのです。例えば、「YOLO」ライフを追求している人は、約束できない家の購入や老後の準備より、現在の生活の質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趣味や自己啓発にお金を使いながら、幸せな生活を目指しています。



3. 正しい YOLO ライフの過ごし方とは

一方、若い世代が未来を諦めるように見えたりして、「YOLO」に対する否定的な視線も高まりました。しかし、本当の YOLO ライフとは、現在を充実すると同時に未来も諦めないことです。つまり、幸せな未来を犠牲することではなく、悔いのない今日を過ごし幸せにしようとする事なのです。

ですから、今を幸せに過ごすため、身分相応ではない極端的な消費や衝動買いするのではなく、自分の夢や理想に近づくための経験や挑戦をすることにお金や時間を費やすことが本当の YOLO だと思います。

そして、平凡で余裕のある日常の大切さを大事に思う傾向も増えました。例えば、給料が高い就職先より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の取れる就職先を望んでいる求職者が増えました。そして、余裕のない日常から少しだけ離れて、余裕のある生活がしたい韓国人の中では今「済州 1 ヶ月暮らし」や多様な形の旅行が流行っています。



「花より青春－アフリカ編」の代表ポスター



済州オルレ

代表ポスター出展：http://program.tving.com/tvn/floweryoungboy/56/Board/View?b_seq=3&page=1&p_size=10

한국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옴로 (YOLO) 라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마구치현 한국국제교류원 배운주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금 한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옴로라이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옴로 (YOLO)’ 란?

여러분은 YOLO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옴로 (YOLO)’ 란 ‘인생은 오직 한 번뿐’ 이라는 뜻인 ‘You Only Live Once’ 의 약어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현재를 사랑하고 즐기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옴로 (YOLO)’ 는 캐나다의 래퍼 드레이크가 2011 년에 발표한 곡 ‘The Motto’ 에 가사로 사용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 년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의 홍보영상에서 ‘YOLO, man’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2016 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옴로 (YOLO)’ 가 한국에서 왜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2. 한국에서 ‘옴로 (YOLO)’ 가 유행하고 있는 이유

‘옴로 (YOLO)’ 라고 하는 말은 ‘꽃보다 청춘-아프리카 편’ 이라고 하는 한국 여행방송에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혼자 여행을 하는 여성을 보고 멋있다고 말을 걸자, 그 여성이 ‘옴로 (YOLO)’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경쟁, 저성장기, 나날이 높아지는 청년실업률,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지쳐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미래를 위해 현재 힘들어하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현재를 사랑하고 즐기자’ 라고 하는 의미인 ‘옴로 (YOLO)’ 는 일종의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옴로 (YOLO) 라이프’ 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약 없는 내 집 마련과 노후준비보다, 현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미와 자기계발에 돈을 쓰며 행복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3. 진정한 ‘옴로 (YOLO) 라이프’ 란?

한편, 일각에서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YOLO’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옴로 (YOLO) 라이프’ 란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행복한 미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닌,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본인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나 충동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이상에 다가가기 위한 경험과 도전에 소비하는 것이 진정한 율로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고 여유 있는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향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높은 곳보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삶의 균형)’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을 원하는 구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는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싶은 한국인 중에서는 지금 ‘제주에서 한 달 살기’와 다양한 형태의 여행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꽃보다 청춘-아프리카 편’ 대표 포스터



제주 올레길

‘꽃보다 청춘-아프리카 편’ 대표 포스터 출처 : http://program.tving.com/tvn/floweryoungboy/56/Board/View?b_seq=3&page=1&p_size=10

<내용 출처 및 참고자료>

1. “진정한 ‘율로’, 과소비 아닌 현재 충실하고 미래 대비하는 것”, <브릿지 경제>, 2018-01-03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03020021866>
2. 김난도·전미영·이향은·이준영·김서영·최지혜·이수진·서유현, 『트렌드 코리아 2018』, 미래의창